

ESG경영과 IT

ESG는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5년 ESG 공시 의무화 도입과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의 확대를 발표함에 따라 IT 플랫폼 기업들 또한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SG경영의 중요성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하지만 ESG는 기업의 경영에서 중요한 지표가 돼가고 있다. 국외 투자자나 펀드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사회적 책임 등의 요인을 재무성과 함께 고려하는 추세이다. 투자자들은 ESG를 잘하는 기업이 수익도 많고 주가도 오른다 보고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회와 환경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고 안정적이라 성과도 좋다는 논리다. 이에 기업들은 ESG경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론 관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

IT 기업들이 ESG경영을 적극 추진하려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IT 기업은 대부분 독점 플랫폼을 지향한다. 사회 여론이나 정치권의 규제는 플랫폼 기업에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곤 한다. 어느 기업보다 IT 기업은 이미지에 신경 써야 하기에 앞으로 더 많은 IT 기업의 ESG관련 활동이 늘어날 것이다.

IT 기술로 실현하는 ESG경영

IT 신기술은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 글로벌 기업들은 IT 기술을 경영에 접목해 해결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대규모 장비를 사전에 구매하는 낭비를 막고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위해 저전력 프로세서 개발과 재생에너지 활용에 힘쓰고 있으며 데이터를 활용해 ESG경영을 위한 지표와 원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상생과 공존을 무시하고 재무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기업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필수가 된 ESG를 위해 IT 기업들은 이를 준수하고 신기술을 활용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지속 성장과 생존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